

중국, 국경 통과 비자 면제 10일로 연장

국가이민관리국은 12월 17일 공고를 발표하여 이날부터 국경 통과 비자 면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완화 및 최적화하여 국경 통과 비자 면제 외국인인 경내 체류시간을 기존의 72시간과 144시간에서 모두 240시간(10일)으로 연장한다고 전했다. 또 21개 통상구를 국경 통과 비자 면제 인원의 출입경통상구로 새로 추가하여 체류활동 구역을 가일층 확대한다고 전했다.

로씨야, 브라질,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조건에 부합되는 54개 나라의 인원인 중국에서 국경을 통과해 제3국(지역)으로 갈 경우 우리 나라 24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60개 대외 개방통상구중 임의의 통상구를 통해 비자 면제로 중국에 올 수 있으며 규정된 구역에서의 체류활동은 2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40시간, 60개 통상구, 24개 성! 국경 통과 비자 면제 정책을 적용하는 성은 19개에서 24개로 확장되었으며 정책 적용 통상구는 39개에서 60개로 54% 증가했다.

정책 적용 구역에는 경진기(북경·천진·허북),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와 성유(성도·중경) 지역 등 국가 중점 발전구역이 포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원이 풍부하고 문화 저력이 깊으며 민족풍토가 독특한 등 인문지리 특색이 선명한 지역도 들어있다.

새로 증가된 5개 성은 산서, 강서, 안휘, 귀주, 해남이다. 산서는 고대 건축물, 고적이 많고 강서는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안휘성은 장



12월 4일, 한 일본 관광객(앞)이 북경 수도공항 제3터미널 변방검사 입국 현장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신화넷

강삼각주 일체화 발전의 중요한 구역이고 귀주는 세계자연유산이 풍부하며 해남은 우리 나라에서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항을 한창 건설중이다...

이전의 72/144시간 국경 통과 비자 면제 정책에 비해 이번 정책을 조정할 가장 큰 특징은 구역간 통행을 허가한 것이다. 즉 국경 통과 비자 면제를 받은 외국인은 우리 나라 24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체류

활동 구역에서 다른 성에도 여행할 수 있다.

비자 면제 정책의 리익이 방출되고 있다. 광주 백운공항통상구만 보더라도 1년이래 입경한 외국인 여행객이 연인수로 350만명을 넘어섰고 국제 관광(외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84% 증가했다.

현재 중국은 이미 25개국과 전면적인 상호 비자 면제를 실현하였고 38개국에 대해 일방적인 비자 면제 정책

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54개국에 대해 국경 통과 비자 면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각 통상구를 통해 입경한 외국인은 연인수로 2,921.8만명으로 동기 대비 86.2% 증가했는데 그중 비자 면제를 통한 입경자는 연인수로 1,744.6만명으로 동기 대비 123.3% 증가했다.

/ 인민넷 - 조문판

비자 면제 덕분에 중국 찾는 한국 관광객 '쑥쑥'

12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료녕성 대련시 해변가에 있는 성계만두식당은 한국 서울 등지에서 온 관광객 30여명으로 북적였다.

한국인 관광객 강모(25)씨는 "서울에서 대련까지 비행기로 1시간 30분이면 올 수 있다."면서 "미리 단체관광을 신청하고 주말을 리용해 만두를 먹으러 중국에 왔다."고 말했다.

11월 8일, 중국정부는 한국 등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일반리권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사업, 관광, 친척·친구 방문, 국경 통과 목적으로 15일 이내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면제로 입국할 수 있게 됐다. 11월 30일, 중국은 비자 면제 체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였다.

비자 면제 조치가 시행된 이후 한국인의 중국 여행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대련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직항편이 많아 인기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태성국제여행사(대련) 사장 박성철은 "겨울철은 대련 여행의 비수기이지만 한국 관광객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면서 "한



12월 4일,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 상해 예원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 / 신화넷

달여 동안 한국 젊은이들이 점차 몰리면서 지금은 주말을 리용해 2박 3일 또는 1박 2일 패키지 여행을 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국인 관광객 정모(28)씨는 여자친구와 '자유여행'을 택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련으로 오는데 항공권 가격이 한화 7~8만원 밖에 안한다. 주중에 바쁘게 일하고

금요일 퇴근후 출국해 2일 동안 중국에 머물 수 있다. 다양한 정통 중국 음식을 먹고 색다른 문화와 생활을 경험하며 뜻깊은 주말을 보낼 수 있어 정말 즐거웠다." 정씨의 말이다.

2일,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후취투에 따르면 비자 면제 조치 시행 이후 한국인 관광객의 예약량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150% 이상 급증했

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중국내 목적지로는 상해·청도·북경·광주·심수·대련 등이 꼽혔다. 이중 상해의 한국인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0%, 전월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중경에서 휘귀를 먹거나 상해에서 샤오롱바오를 사기 위해 줄을 서있는 일부 한국인 블로거들의 영상은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좋아요'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을 찾는 젊은 세대가 늘면서 먹거리를 위주로 한 테마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 여행사는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절강성 횡점(橫店) 영화성 등 중국 사극 드라마 촬영지를 안내하는 '중국 드라마 투어'도 진행하고 있다.

남개대학 관광서비스학과 교수 석배화는 비자 면제 조치가 관광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한 교류와 협력이 강화돼 량국 비즈니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중국 관광 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량국 교류 심화와 관광시장 발전으로 한층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신화넷

외교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 안정적이다

16일,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최근 한국의 정국 변화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이는 한국의 내정이기 때문에 중국은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고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14일 한국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윤석열은 직무 정지를 당했다며 중국은 이번 탄핵을 어떻게 평가하고 한중 관계와 조선반도의 정세에 대한 탄핵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고 물었다.

림검은 "최근 우리는 한국의 정국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내정이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림검은 중한은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쌍방의 공동 리익에 부합되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고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서로 마주보고 가면서 량국의 우호 협력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림검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관련 당사국 공동의 리익에 부합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화넷

외교부:

<중미 과학기술협력협정> 연장 량국 인민 리익에 부합

12월 16일,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과 미국이 <중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장시간 연장한 데 대해 <중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장시간 연장은 중미 정상회담 공감대를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자 량국 국민의 리익에 부합되기에 미국측이 중국측과 손잡고 협정을 확실히 실행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림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미 과학기술협력의 본질은 상호에게 리익이 되고 윈윈하는 것이다. <중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은 량국이 수교한 후 서명한 최초의 정부간 협정의 하나로서 중미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

에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주었다.

<중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연장은 중미 정상회담 공감대를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량국 국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했다. 량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쌍방이 공동으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게 하고 세계인의 복지를 증진하게 될 것이다.

그는 미국측이 중국측과 손잡고 협정을 확실히 실행해 중미 과학기술협력의 결과가 량국과 세계에 진정한 도움으로 되고 리익이 되기를 바란다

/ 신화넷

중미, 정부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연장

중국과 미국 정부 대표는 13일 북경에서 <량국 정부 과학기술협력협정의 개정 및 연장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해 <중

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을 2024년 8월 27일부터 5년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 국제방송

영국, <전면적·진보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공식 가입



3월 20일, 영국 런던 상뻬울로 대성당 앞에 활짝 핀 벚꽃. / 신화넷

15일, 영국은 <전면적·진보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공식 가입하여 이 무역 협정에 가입한 첫 유럽 국가가 되었다.

영국정부의 공고에 따르면 이 협정은 해마다 영국에 20억파운드의 경제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상무부는 영국의 CPTPP 가입은 정부의 '변혁계획'의 핵심부분으로서 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민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협정이 해마다 영국 가정에 10억파운드의 월급 수입

과 함께 영국 각 지역에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영국 상무부대신 조나스 에노즈는 이 협정은 무역거래를 촉진할 수 있어 영국 기업에 더 많은 해외 기회를 창조해주고 취업을 지원하며 월급 수준을 높이고 국내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에는 일본, 베트남, 페루, 칠레,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가 포함된다. 이 협정에 따라 서명국은 공업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 혹은 인하할 수 있으며 무역 및 투자 영역에서 편리한 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 신화넷

애급 500 메가와트 태양광발전소 가동

14일, 애급 총리 매드블리는 아스완성에서 중국 기업이 건설한 콤우포 태양광발전소의 가동을 선언했다. 이 발전소는 10평방키로메터의 면적에 500 메가와트의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 중국에서 너지건설주식유한회사에서 건설한 이 발전소는 애급의 최대 태양광 저장 일체화 발전소로서 25만 6,000가구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 신화넷



애급 남부 아스완성의 콤우포 태양광발전소